

## 평화를 꿈꾸는 청년들과 함께 가슴 뛰었던 날들

- 이름 : 한수지
-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자원봉사단 스리랑카 사무소 청년/피스빌딩 프로젝트 팀 (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Sri Lanka, Youth and Peacebuilding project team)
- 직위/직급 : Partnership Associate (UN Youth Volunteer in Youth and Peacebuilding)
- 지원 경로 : 청년UNV 6기
- 근무 기간 : 2018.2.9.-2019.5.9.

### □ 시작하며

스리랑카. 인도 옆에 위치한 섬나라. ‘인도양의 진주’ 라고 불리는 곳. 그것이 내가 스리랑카에 대해 알고 있던 전부였다. 2018년, 청년 UNV로 스리랑카로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스리랑카에서 1년 넘게 근무한 지금, 누군가 내게 스리랑카는 어떤 곳이야고 묻는다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 이웃들을 돕는 청년들이 가득한 국가’ 라고 대답할 것 같다.

### □ ‘청년’ 에 대한 막연한 관심으로 지원하다

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하면서 인턴으로 일하던 때, 우연히 ‘청년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 중 유독 관심이 가는 공고가 바로 유엔자원봉사단 스리랑카지부의 ‘청년/피스빌딩 (Youth and Peacebuilding)’ 프로젝트 부서였다. 내가 관심이 가는 사회 문제는 정말 많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있는 청년들을 양성한다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꾸고 있어서였을까. ‘청년’ 이란 단어는 내게 크게 다가왔고, 직무 기술서에 나온 내용들을 세심하게 읽으며 지원서를 작성했다. 감사하게도 긍정적인 연락을 받았고, 스카이프를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다. 여러 질문이 오가면서 마음이 편해졌는지, 우산을 종종 자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했던 내게 면접관은 ‘스리랑카에 와서 우산 잃어버리면 큰일나요’ 라고 말해줬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 후,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8년 2월 겨울, 기대하는 마음으로 스리랑카로 떠나게 되었다.

### □ 스리랑카, 내전 그리고 그 후

스리랑카는 언뜻 보기엔 평화롭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싱할리족과 타밀족간의 내전이 극심했던 국가다. 영국 식민지 시대 당시 식민통치를 위해 영국 정부는 영어 중심의 교육을 수용했던 타밀족 인사를 공직에 임명했다. 또, 기독교 국가를 표방했던 영국의 통치이념 상 대다수의 싱할리족이 믿고 있던 불교는 경시되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정권을 잡은 통일국민당 (the United National Party: UNP)은 싱할리족 중심의 정치를 펼쳤고, 불교국가로서의 스리랑카 건설을 강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타밀족의 정치 및 사회 참여에 제재가 가해졌고, 급진 불교 주의자들이 세력을 얻으면서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에 대한 차별도 극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타밀족이 다수 거주하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호소했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싱할리족이 집권한 UNP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만이 쌓여갔던 타밀족은 ‘독립’을 주장하면서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타밀족의 완전 독립을 주장한 무장 반군단체)를 세웠고 1983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간 정부군 (싱할리족) - LTTE (타밀족) 간의 전쟁이 이어졌다. 전쟁 당시 중학생이었던 직장동료의 말에 의하면, 수도인 콜롬보 시내버스에서 LTTE군의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나서 버스에 큰 짐을 들고 탈 수 없었고, 가는 곳곳마다 보안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한다. 전쟁이 일어났던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에서 살았던 친구들의 경우, 정부군의 공격으로 인해 피난을 가야 했고 지금도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당시 타밀족들의 피신을 도왔던 싱할리족 인권운동가 루키 씨 (Ruki)는 정부군에 납치되었다가 여러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면서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이슬람 사원을 공격하는 등 다양한 종족 간, 종교 간 갈등이 진행되었다.

내전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북부 지역에서는 전쟁 이후 실종된 가족을 둔 이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엔 수도인 콜롬보와 동부지역에서 이슬람 극우 세력들의 테러도 발생했다.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었다.

## □ 내전 이후 ‘평화’를 세우는 데 마음을 쏟는 청년들, 그리고 나의 역할

스리랑카의 청년들은 이전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 전쟁을 겪었듯, 내전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한 친구는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기도 했고, 다른 친구는 정부군에 의해 강제 이주를 겪은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그 경험 때문일까. 그 누구보다 평화를 향한 마음이 절실한 청년들이 정말 많았다.

내가 근무한 유엔자원봉사단 스리랑카 사무소 청년/피스빌딩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청년들의 가능성과 역량에 집중했다. 청년과 평화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안 2250호를 따라,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유엔기구-NGO-청년주도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도모했다. 나는 그 곳에서 ‘평화를 위한 청년들 (Youth4Peace)’ 이란 청년 평화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유엔기구-NGO-청년주도기관 네트워크 (Youth, Peace and Security Coalition in Sri Lanka) 업무를 도왔다.

### (1) ‘평화를 위한 청년들 (Youth4Peace)’ 청년 평화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92명의 청년 평화활동가를 지원하다

먼저, 청년 평화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었다. 1) 공

동체 내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리더 양성 프로그램 (Training of Leaders on Youth and Peace), 2) 각 지역 공동체로 돌아가 참가자들이 프로젝트 진행, 3) 애드보커시 교육 프로그램 (Training of Advocates on Youth and Peace), 4) 애드보커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 탐방으로 구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동부, 북부, 중부, 남부에서 진행된 네 차례의 리더 양성 프로그램(Training of Leaders)을 통해 만난 92명의 참가자들이 1년 동안 프로그램 과정을 잘 이수하도록 도왔다. 각자 지역 공동체로 돌아간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프로젝트 제안서를 잘 다듬을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했고, 청년 피스빌더 연합 네트워크 (United Network of Young Peacebuilders: UNOY)와 협력하는 다른 나라의 청년 멘토들과 연계해 멘토링을 진행했다. 92명의 참가자들은 지역 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며 약 25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 예로, 동부지역에서 만났던 참가자인 램 (Ram)의 경우 첫 번째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마을로 돌아가 5명의 친구들과 지역 내 실업문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빠지는 사례가 많음을 인지, 지역 내 6개 직업교육기관에 방문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니즈를 분석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국가에서 제공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했고, 직업교육을 받을 경우 국가에서 공인된 인증서를 받아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청년 피스빌더 연합 네트워크 (UNOY) 소속 멘토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50여 명의 학생 및 청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소개하고, 더 많은 학생들도 공동체 내 사회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엔 결의안 2250호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을 돕고자 ‘지혜’란 뜻의 ‘수찌암 재단 (Suzhiyam Foundation)’을 팀원들과 함께 설립했다.

람과 같은 여러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애드보커시 활동도 깊이 배우게 되었고, 스리랑카 내에서 싱할리족, 타밀족, 무슬림 간의 분쟁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공동체 간의 화해 (reconciliation)”, “전쟁 이후 정부군에 의해 사라졌다고 추정되는 타밀족 청년들의 문제 해결”, “북부지역 군대 주둔으로 인해 강제 이주된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구체적인 애드보커시 활동 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지역탐방도 진행했다.

1년 동안 92명의 참가자들이 각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나는 다양한 국가의 멘토들과 함께 피드백을 제공하고, 지역 탐방을 진행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주는 코디네이터 겸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했다. 또한, 스리랑카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이야기가 잘 알려지도록 ‘청년 평화 활동가들의 이야기 (Young Voices of Peace)’라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중 리프카 (Rifka)의 이야기는 유엔자원봉사단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세계 평화의 날’ 포스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2) 유엔기구-NGO-청년주도기관 네트워크 (Youth, Peace and Security**

## Coalition in Sri Lanka)에서 UNV를 대표하다

2016년, 유엔 결의안 2250호의 제언을 따라, 스리랑카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평화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유엔기관, NGO, 청년주도기관이 모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의 유엔기구-NGO-청년주도기관 네트워크 모델을 본떠 네트워크 기관 (Youth, Peace and Security Coalition in Sri Lanka: YPS Coalition) 이 만들어졌다. 이 네트워크 기관은 각각 1곳의 유엔 기관, NGO, 청년 주도/지원 기관이 대표하는 공동의장기관과 26개의 회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근무했던 기관이 공동의장기관을 맡고 있어서, 2018년 4월부터 약 1년 간 우리 기관을 대표해 기관들 간의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일을 맡았다.

네트워크 기관인 만큼 기관들의 회의 참여가 ‘의무’가 아니라 기관의 ‘부가적인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다행히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회원기관들이 많아서 기관들의 요청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조항 (Terms of Reference)’ 과 1년 프로젝트 계획도 회의를 통해 함께 세워나갔다.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면서 29개의 회원기관을 5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누었다. 그 예로는, 정책대화 준비모임, 캠페인을 위한 모임, 트레이닝 준비모임, 보고서 준비모임, 홍보팀이 있다. 한 달에 1-2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워킹그룹 간의 정보공유나 프로그램 준비와 관련해 기관 간의 소통을 조정하는 일을 도왔다.

11월부터는 독일 정부에서 후원을 받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12월 9일 유엔 결의안 2250호 결의 3주년을 기념, 청년들을 위한 피스빌딩 역량강화 프로그램 (Training of Trainers on Youth and Peace)과 해외 인사들을 초청해 어떻게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피스빌딩에 앞장설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대화를 준비했다. 정책대화에는 네트워크 (YPS Coalition) 회원기관, 해외인사, 청년 피스빌딩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자들, 정부 인사들,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처음 계획은 정부 인사들과 함께 정책에 대해 꾸준히 토론하고, 정책대화를 기반으로 정책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는 것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정부 인사를 초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청년 주도 피스빌딩 프로젝트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이들이 참여하면서 장기적으로 유엔 결의안 2250호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입안할지에 대해 논의했고, ‘청년들의 정치참여’, ‘거버넌스’, ‘아시아 국가 간 협력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이야기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유엔기관-NGO-청년주도 기관 네트워크 회의에서 다른 회원 기관들과 함께 스리랑카 네트워크 기관 (YPS Coalition) 사례를 모범 사례로 발표하기도 했다.

### □ 끝으로 - 평화를 꿈꾸던 청년들과 함께 일하며 ‘한반도’의 평화도 더불어 꿈꾸다

지역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평화’를 위해 열정을 쏟는 청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반도 내의 갈등과 분단이 계속 생각이 났다. 내전을 회복하는 일도 어찌면 한반도 상황이 그렇듯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일 수 있는데, 스리랑카의 청년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람

들의 인식을 바꾸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대학생 때부터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북한’과 남북관계에 막연한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던 나는, 스리랑카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청년들을 보면서 나도 무언가 할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내가 근무했던 청년/피스빌딩 팀이 그랬듯, 여러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평화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지금, 나도 스리랑카에서 만났던 청년들처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NGO에서 근무하고 있다. 북한에서 오신 지 얼마되지 않은 선생님들을 만나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우리 생애에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으로만 담았던 꿈을 현실로 내딛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해주신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끝/

[별첨]



네트워크 기관 (YPS Coalition)에서  
진행했던 정책대화가 끝난 후  
참가자들과 함께



에드보커시 활동계획을 위해 청년  
참가자들과 함께 떠났던  
남부 지역탐방